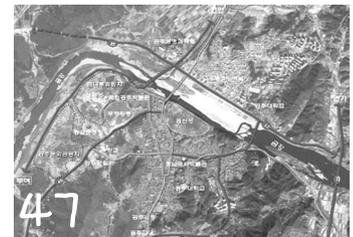


CONTENTS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세시풍속과 조상의 슬기 _ 이선자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_ 8
 아름다운 간판 / 신용희
 특집(Ⅰ) _ 10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⑩ / 백원철
 특집(Ⅱ) _ 14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⑩ / 장길수
 특집(Ⅲ) _ 16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 / 나태주
 특집(Ⅳ) _ 21
 명절-축제 / 이걸재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 _ 24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
 향토사료 _ 26
 무령왕 이야기 / 윤용혁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31
 공주시 웅진동
 새 책 소개 _ 37
 공주의 인물 _ 38
 정규한 선생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_ 40
 풍물, 요가
 내고장 소식 _ 44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6
 문화원 소식 _ 60



무령왕릉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백제 무령왕의 능. 1971년에 발굴된 벽돌무덤으로, 삼국 시대 분묘 가운데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것이며, 금관을 비롯하여 금팔찌·금귀고리 따위의 세공품과 도자기·철기 따위가 출토되었다.



무령왕릉의 지석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 丙戌朔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 癸酉朔十二日 甲申

安曆登冠大墓立志如左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초하루 병술) 7일 임진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초하루 계유) 12일 갑신에 이르러

관례에 따라 대묘에 안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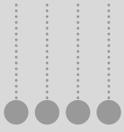
이러한 글이 적혀있어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아쉽게도 무령왕릉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다.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의 무령왕릉 내부 모습



이 선 자 _

- _ 충청남도의회 의원
- _ 충남여성포럼 대표
- _ 충청남도 장학회 이사
- _ 전, 충청남도 공주교육청 교육장
- _ 전, 공주여자중학교 교장

세시풍속과 조상의 슬기

2월은 음력으로 치면 정월로 우리민족 4대 명절인 설날과 전통 절일(節日) 대보름이 있고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있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달이다.

설날은 그리운 부모 형제를 찾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가 오붓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여도 명절이 돌아오면 며느리들이 모여앉아 설빔이나 추석빔을 바느질하였는데 솜씨가 좋다고 소문난 집에는 동네 처녀들이 바느질감을 들고 와서 동정달기, 치마,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를 차례로 배워가곤 하였다. 한복 바느질 중 저고리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깃 달기와 쉼 모양이 제일 까다로워서 이것만 제대로 익히면 웬만한 바느질은 다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에는 유럽의 패션계가 눈독을 들일 만큼 독창성이 뛰어난 우리 한복은 저고리의 깃이나 쉼, 소매, 도련, 버선의 코 등 자연스럽고 예쁜 곡선을 이루고 있어 마치 정겨운 시골길이 연상되기도 하고, 고려청자의 유려하게 흘러내린 곡선이나 기와지붕의 물매를 닮아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귀족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부드럽고 섬세한 성품을 닮았다고나 할까?

신부가 입는 빨강치마 초록색 저고리는 보색대비이면서도 결코 촌스럽지 않은 것은 치마와 저고리의 면적 분할이 황금분할로 잘 이루어져 마치 꽃밭에 예쁘게 핀 장미꽃이 꽃잎파리 속에서 살짝 고개만 내민 듯 산뜻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많이 입었던 다홍치마



노랑 저고리는 우리 산하에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개나리 진달래의 색깔을 본 딴 것이라 하니 자연을 숭상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빛난다.

어린이들이 입는 색동저고리는 바느질을 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무지개 색과 같이 아름답게 배색하여 귀여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사이의 저고리 동정 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젊은 주부가 드물며 번거롭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날이나 명절이 아니면 한복을 잘 입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은 입어보면 따뜻하고 한국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데 말이다. 이와 함께 자투리 천을 모아 기하학적인 무늬와 색의 조화를 이루어낸 조각보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근검절약하는 생활상과 함께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오랜 시간 동안 손끝으로 이루어낸 절묘하고 독창성이 있는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자기는 서양에서는 잘 쓰지 않는 민족고유의 생활 도구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간수하기가 편리한 생활필수품 중 하나이다. 요사이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패치워크나 조각보 공예, 천연 염색 등 동아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 적이라 할 수 있다.

명절에 따른 세식(歲食)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던 절식(節食)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즘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건 여자건 만나는 사람마다 살이 찌서 고민이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먹으니 왜 탈이 나지 않겠는가.

옛날 엄동설한에 어느 효자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눈발을 헤매고 다니다가 눈 속에 산딸기가 있어 따다가 드렸는데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선생님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우리가 아닌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백화점에만 가면 사시사철 딸기가 있고, 사과가 있고 열대 과일인 오렌지,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감동은커녕 있을 수 없는 일로 알 것이다.

올해는 2월 21일이 정월 대보름이었다. 정월 대보름은 설 명절과 보름의 차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세시 풍속이 전해진다. 달맞이 달집태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자치기, 투호, 널뛰기, 윷놀이, 뽕다리밟기, 복조리 걸기, 용알뜨기 이런 정도가 기억이 된다.

어린시절 대보름 달맞이를 한다고 뒷동산에 오르곤 하였는데, 그때 보던 달은 어찌면 그렇게 크고 신기하였던지 정말로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였다.



어른들은 보름달을 보고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쳐 보았고, 달집태우거나 쥐불놀이는 다음 농사를 위해 해충을 없애고 초가집 주변에 많이 생기는 냄새나는 해충 노래기 등을 태운다고 한다.

특히 설날 먹는 흰떡국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화한 것으로 '밝음'을 표시 한다.

전통 절일(節日)이라 하는 정월 대보름은 백중(7.15일) 추석(한가위 8.15)과 함께 보름의 밝은 달 '밝음'을 뜻한다.

특히 정월대보름이면 열나흘 날 오곡밥(잡쌀, 콩, 팥, 수수, 조 등)과 함께 갓은 나물(9가지 나물)을 맛있게 무쳐서 먹는다. 다섯 가지 이상의 혼합 곡식과 제철에 잘 말려두었던 갓은 나물을 고소한 기름을 두르고 갓 볶아 무쳐서 먹으니 얼마나 맛이 있겠는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는 세시 음식들은 오늘날의 영양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건강에 참 좋은 웰빙음식들로 새삼 옛 선현들의 지혜로움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가 경험한 60년대만 하여도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던지 하루 1끼로 끼니를 때우는 집도 많았고, 입 하나(食口) 덜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더부살이로 보낼 만큼 곤궁한 집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그 당시는 추운 동절기에 변변한 채소도 없었거니와 춘궁기를 앞에 놓고 쌀도 떨어져가는 시기에 정월 대보름이라 하여 오곡밥과 여러 가지 나물들을 이웃집을 돌며 부담 없이 얻어먹을 수 있었었다. 이를 통하여 영양부족으로 올 수 있는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을 보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어려운 시기를 즐겁게 보낼 줄 알았으니 조상님들의 지혜가 참으로 슬기롭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보름날 아침에는 일년 내 더위를 타지 말라고 아침 일찍 더위를 팔고, 호두, 은행, 잣, 밤 등으로 부럼을 깨무는데 자기 나이대로 깨물며 치아의 건강을 확인하였다.

귀밝기 술은 테우지 않고 찬술을 먹었는데 이는 봄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1년 내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라며 우리들에게도 주시곤 하셨다. 밥도 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지게하고, 길쌈도 아홉 광주리 하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설 명절에 어머니께서 곱게 지어주신 치마저고리도 정월보름까지는 입고 다닌 것 같다. 그런 기억 때문에 명절이 되면 나는 한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도록 한다. 소중한 우리 것 우리들이 마음껏 만끽해야 하는데 생



활의 편익에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할머니이나 어머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던 전통과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풍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에 명절 때마다 자청하여 며느리 시집살이를 좀 하고 있다. 며느리가 셋이나 되니 나름대로 친정집의 가풍이 있겠지만 며느리라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라면 그냥 넘어 가도 대수롭지 않지만 격식을 갖추어 음식도 마련하고 싶고 며느리들이 보다 높은 안목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요사이는 딸을 낳아도 그저 공부 하라고 딸들을 위하기만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나 일에 대한 것을 전혀 가르치려 하지 않는 어머니도 더러 있는 것 같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초·중·고에서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 반수 이상은 현모양처라 하였다. 현모양처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여자는 현모양처가 제일이지. 공부만 잘 해서 무얼 해.’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현모양처의 사전적 의미는 ‘어진 어머니이자. 착한 아내’라고 되어 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라도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하여야 하고, 자식도 낳고 일가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삶을 개척하며 성실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으로서 예부터 전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인 설 명절이나 정월 대보름, 추석, 단오 등 세시 풍속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잘 아는 자만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자기 것을 소중히 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들여서 단시일 내에 치장하고 남에게 보이려 하는 것보다 우리 것을 갖고 닦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송례문이 화재로 망실되어 가는 현장을 신문이나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조상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전승되어온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는 전례음식이나 풍속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다듬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기에 우리들은 잘 찾아서 누리고 가르치고 전



수해 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정월달이면 남자들은 사랑방에 새끼를 꼬며, 여자들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말솜씨 좋은 분들의 구수한 옛날이야기로, 혹은 장화홍련이나 사씨남정기 등 고전소설도 돌려가며 읽곤 했다. 요사이에는 컴퓨터에 매달려 가족간에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집이 많다고 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 잘 살수 있게는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적인 뿌리와 문화를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잃어 버렸던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재능 있는 이야기꾼들을 찾아내어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자원을 창출하여 지역사회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얼마 전 시사 프로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하였는데 10명중 7명이 연예인이라고 답했다 한다. 그 이유가 연예인이 인기 있고, 예쁘고, 돈 잘 벌고, 화려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과반 수 이상이 담고 싶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이 장래 꿈이 연예인이라 한다면 나라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이나 부모 사회어른들의 몫이다.

옛날에 우리가 되고 싶었던 현모양처는 여자들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행복한 삶의 목표는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누구나 누리고 싶은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남자도 현모양처에 걸맞은 가장으로, 훌륭한 아버지 현명한 남편의 꿈도 함께 꾸어야 한다.

오늘날은 어쩌면 현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하나인 현모양처의 의미가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의 경지를 넘어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성취 욕구가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호부터 공주문화원에서는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하면서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계획 중에 있다. - 편집자 -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간판 이야기(1) - 미소담 치과

간판은 기관단체나 사업소의 얼굴이고 명함이다. 남에게 제일 먼저 내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판에 신경을 쓴다. 자기네들의 간판이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기를 바란다. 될수록 튀는 색깔과 글씨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리고 거는 자리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공간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우리들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간판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무조건 크게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커도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 거리는 온통 울긋불긋한 간판들로 도배를 한 느낌이다. 너도나도 크게 크게만 발돋움하다보니 간판의 수풀이 되어버려 오히려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그것인 것만 같다. 이는 마치 소음 경쟁과 같다. 한쪽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쪽에서도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쪽의 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점점 큰 소리는 확대 재생산으로 나간다. 오늘날 우리들의 간판들이 마치 그런 모양새들이다.

이런 사정은 공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변화한 거리만 나섰다 하면 보이는 건 오직 간판들뿐이다. 간판의 수풀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라고는 없다. 어지럽다.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들 이리도 크게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마치 허기와 같다. 빈 깡통의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간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다.

조금은 허탈한 심정으로 거리를 가다가 괜찮은 간판 하나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자못 크다. 공주 시내의 사거리. 공주고등학교 쪽에서 금강 쪽으로 내려오다가 옥룡동 방향으로 신호를 받고 꺾어져 가다가 오른쪽 거리는 병원의 거리다. 거기서 예쁜 간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소담 치과〉. 예전 〈이재필 치과〉의 바뀐 이름이다. 〈미소담〉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작은 웃음' (미소)이란 말과 '이야기' (談) 나 '샘물' (潭)을 뜻하는 '담'이란 말이 합성된 것일까? 뜻이야 아무래도 좋다. 미소담, 미소담, 자꾸만 소리내어 부르다보면 얼굴에 정말 미소가 흐를 것만 같고 입술이 부드러워질 것만 같다. 색깔이며 모양, 그러니까 디자인도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좋다. 녹색 바탕에 흰 글씨인데 모양을 크고 작은 타원형 두 개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었다. 팽공 모양이라 그럴까 탁구채 모양이라 그럴까.

길거리를 가다가 고개를 들어 이런 간판 하나 만나게 됨도 하나의 기쁨이요 신선함이다. 마치 목마를 때, 사이다 한잔을 마신 느낌이다. 그리고 보면 이런 간판을 내걸고 있는 주인은 길거리를 가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좋은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보시(報施)하는 사람인 것이다.

글/나태주 시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

공주 시내 고정간판 가운데 약 40%가 불법간판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저마다 “누가누가 더 크나? 내기 한번 해보자”란 듯이 커다란 간판을 온통 거리를 뒤덮고 있다. 옆집보다 더 큰 간판을 걸어서 경쟁에서 이기고픈 심리가 그 간판을 지탱하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건물이 안쓰러울 정도다. 또, 큰 간판으로 인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도 해악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치과는 치아를 비롯한 구강 전반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齒)가 아파 치과에 가서 진료받아 본 사람들은 다 안다.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고 ‘드르륵’ 하는 기계 앞에서 공포에 떨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기억인가를...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치과가 있다.

공주시내 큰 사거리에서 국고개 쪽으로 보면 ‘미소담 치과’란 아담한 간판을 보게 된다. 이 간판을 보고 있으면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미소짓는 젊은 여인의 입술이 떠오르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상큼한 미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아름다운 간판의 주인인 이재필 원장은 “간판은 건물의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은 건물을 살리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죠. 유럽과 미국 등을 가보면 간판도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어 크기와 색깔, 그리고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간판’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판도 문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간판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라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1974년에 ‘이재필 치과’로 개원하였다가 아들 이수행(37) 치의학 박사와 며느리 김계순(34, 보철 전공의) 부부가 치과를 맡으며 ‘미소담 치과’란 새 이름으로 바꾸었다.

환자들 중에는 “이름이 예뻐서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것 같아서 왔다”는 환자도 있다고 이재필 원장은 미소지으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소담 치과 이재필 원장

신용희 명예기자



公山과 錦江을 읊다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저촌(樗村) 심육(沈鑄 1685~1753)공이 남긴 문집 저촌유고(樗村遺稿) 47권은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오다가 근래에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에 들어 간행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 1~2권에서 공주의 산하(山河)에 대해 읊은 여러 수의 시를 접할 수 있다.

공의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부(父)는 영조 초기에 영의정을 지낸 심수현(沈壽賢)이다. 문집에 행장(行狀) 등이 누락되어 있어, 공의 생애에 대하여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실록 등에 의하면 가문의 배경과 학행(學行)이 있어 음관으로 벼슬에 나간 듯 하다. 특히 당시 강화에 은거하며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이 있던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문하에서 배워 성리학에 밝았던 듯 하다. 40여세에 왕자 사부로 처음 사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경연에 자주 입시(入侍)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청렴이 탁월하였던 듯 만년에는 대사헌을 다섯 차례나 역임하기에 이르렀다.

공이 공주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남기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 심수현이 이곳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아버지 심수현은 1714(숙종 40) 양양부사로 재직할 때 선정을 베풀어 포상을 받고 충청도 관찰사로 승진되었던 바, 이해 7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10월에 승지로 제수되어 이임하였다. 그러므로 저촌공이 이 때에 공주에 머물거나 왕래하며 시문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의 나이는 29~30세였다.

먼저 금강에 대하여 읊은 것부터 살펴본다.



맑은 금강 물 공복루 곁으로 흐르고	濯錦江流拱北邊	
거듭 찾아오니 물고기 새들도 반가워하네	重來魚鳥亦欣然	
산벼랑 오래된 누각 푸르스름한 벽에 기대섰고	山厓閣老歇蒼壁	
성곽 밖 푸른 물결에 파아란 하늘 비치네	郭外波清倒碧天	
언덕 아래의 나루터엔 그림 돛배 늘어섰는데	仄岸連津橫彩鷁	
나이든 사공은 키 잡으며 운임을 요구 하네	長年楫柁覓青錢	
바라보니 봄빛은 천지에 완연한데	卽看春色來天地	
풍물과 경치는 아련하게 재미년을 떠오르게 하네	風物依依癸未年	(卷一, 十三, 錦江)

봄날 금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풍광을 읊은 시이다.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은 공산의 숲과, 그 속에 자리 잡은 고색창연한 누각이 잘 어울린다. 파아란 하늘이 비치는 맑은 물결과 한가로운 나루터에 매어있는 채색된 돛배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재미년(지은이 19세)에 이어 공주를 다시 찾은 지은이가 10여 년 전의 추억에 잠길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한 정취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석양 빛 맑은 물결에 비쳐 일렁이는데	落日澄湖波色動	
벳사람 나그네를 끌어 당겨 선실에 들이네	舟人引客入蓬窓	
단청고운 정자는 우뚝하니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紅亭突兀監高岸	
절간의 종소리 은은히 강물위로 흐르네	梵磬依佈落大江	
누대 아래 행인들 한 사람씩 걸어가는데	樓下行人看一一	
물가의 새들은 쌍쌍이 날아가누나	水邊啼鳥去雙雙	
강 물결 길게 흐르며 포도 빛으로 푸르는데	漣漪十里葡萄綠	
새로 빛은 술들도 항아리에 가득 하다네	欲撥新醅滿玉缸	(卷二, 二十, 錦水)

해질 녘 강변의 풍경을 묘사한 시이다. 충충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과 서둘러 둥지를 찾아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보이고, 잔잔하게 물결치는 긴 강물 위로 은은하게 산사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정경은 역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지은이는 또 공북루에 올라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강가의 높다란 누대 붉고 푸른 잎 돌렸는데	江上高樓襯碧紅
먼지 낀 성벽엔 등롱이 얼마나 걸렸더니	幾多塵壁霧紗籠
서로 만나 추억하노니 가을에 거듭 만났었고	逢迎尚憶重秋會
노래하며 즐거움 나눔에 자리를 함께 하였었네	歌吹交歡一席同
아름다운 이곳도 오늘까지 큰 아픔 안고 왔으니	勝地卽今藏浩劫
임금 받들던 당일엔 행궁이 설치 되었었네	奉天當日設行宮
훌륭한 조정에서 오히려 방비를 중하게 하여	聖朝尙軫重門禦
이미 호서 백성들에게 환란을 벗어나게 하였네	已識湖氓避轉蓬

(卷二, 二十, 拱北樓)

울긋불긋 단풍이 짙은 가을철에 공북루에 오른 지은이는, 지난 때의 아픈 역사의 한 순간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고 있다. 그것은 곧 100여 년 전 이괄의 난을 피해 몽진하여 이곳에 인조의 행궁이 들어섰던 곳임을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지은이는 풍류를 즐겼던 듯 하다. 공북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다음과 같이 읊기도 하였다.

급게 치장한 기녀들과 누대에 오르니	珠翠凝粧擁上樓
풍악도 성하게 강 위에 울리도다	急絃豪竹韻江頭
행인들도 풍류의 즐거움을 아는 터라	行人亦解風流事
강변의 배들도 모두 누각이 있다네	多少沙邊盡閣舟
취하여 술병 두드리며 내려가지 못하니	醉拍金壺不下樓
한 해의 가을 풍경 금강 가에 깊구나	一年秋色錦江頭
아리따운 님들이 이별 곡을 부르지 말라	佳人莫唱陽關曲
푸른 물결 배위에선 날마다 석별이 있다네	日日滄波有別酒

(卷二, 九, 歸路至公州...)

이 시의 제목이 「돌아와 공주에 이르자 공북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이 되어 돌아왔다. (歸路至公州 設樂于拱北樓 抵夜方還)」라고 한



바에서 저간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겠다. 아마 어떤 임무를 띄고 남쪽에 갔던 지은이가 돌아오자 위로의 술자리를 공북루에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지은이가 산성에 올라 읍내를 바라보며 지은 시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십리 떨어진 산루에 석양빛이 비치는데	十里山樓落日斜
성벽 겹겹이 하얀 안개 둘러 가려지네	子城千堞白烟遮
강변에선 나그네 떠나가니 새들이 지저귀는데	沙頭客去禽相語
수면 위에 바람 그치니 물결도 일렁이지 않네	水面風恬浪不花
구름 위 저물녘 종소리 먼 절에서 들려오고	雲外暮鐘來遠寺
달빛 속 돌아가는 길에 검은 까마귀 쫓아나네	月邊歸路趨昏鴉
높이 올라 웅진의 객관을 굽어보니	登高俯矚熊津館
줄 지어 비늘처럼 잇닿은 집 얼마나 될거나	次第鱗鱗有幾家 (卷二, 二十, 上山城低視邑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촌 심육공은 공산성이나 금강 등을 소재로 공주와 관련하여 여러 수의 시를 남기고 있다. 평소 학자로서의 명성이 있었던 것이나, 이를 보면 시문(詩文) 창작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주지역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겠다.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0)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3. 창고터와 땅이름

옛날에는 세금의 대부분을 곡식으로 받았으므로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곳곳에 많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조세·공물의 보관과 운반을 담당할 향리의 관청으로 사창(司倉)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백성에게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곡식을 쌓아두던 곳집인 사창(社倉)이 각 고을에 있었다.

창고가 있던 마을이 창고 이름 그대로 땅이름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사창(社倉)이 있었던 곳에 사창리란 마을이, 공세창(貢稅倉)이 있었던 곳에는 공세리라는 마을이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창리 : 전남 무안 몽탄면, 경남 창령 부곡면, 전북 고창 부안면, 충북 괴산 괴산읍, 경기 화성 양감면, 강원 화천 사내면 등

▶공세리 : 충남 아산 인주면, 경기 용인 기흥읍, 경기 양평 개군면 등

▶해창(海倉) : 전북 김제 죽산 대창

리, 충남 당진 고대면, 등

▶북창(北倉) : 당진군 우강면

그저 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창말, 창리, 창촌 등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내려온 곳도 많다.

공주는 충청감영이 있었던 곳으로 공세창, 동창, 서창, 남고, 북고 등 많은 창고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조선 중엽 영조 시대에 공주에는 26개면에 207개 리가 있었다. 그 중 창고와 관련된 땅이름으로 창리(倉里)가 3개 있었는데, 현재의 공주 관할 지역엔 정안면 한곳에 있었다. 조선말에 동리수가 증가하여 1116개리가 되었는데 공주 관할엔 창고와 관련된 창촌리(정안면), 창촌(신상면), 내창리(우정면) 등 3개리가 있다. 그 외에 창고가 있었던 곳이 창말, 창촌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자연부락 이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땅 이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땅이름마저도 점차 기억 속에

서 사라지고 있다. 이에 창고와 관련된 공주 지역의 땅이름을 살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창말(倉-, 창동) : 정안면 광정리

면소재지 동북쪽 광정 3구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환자 쌀을 저장하던 공주의 북창(北倉)이 있던 마을이다. 창고의 위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광정 3구 127번지에 사시는 장주순(75세)씨에 의하면 현재의 집이 고조부 때부터 살아왔던 건물이라 한다. 지금도 집 부근의 밭에서 옛 기와 조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 분말씀에 의하면 그 주택 인근이 옛날 창고터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곳은 창동(倉洞) 또는 창리(倉里)라고도 한다.

창말과 관련된 땅이름으로 창말다리와 창말소류지가 있다. 장터 마을에서 창리로 연결되는 정안천의 다리가 창말다리이며, 창말 동북쪽 저수지를 창말소류지라 한다. 의당면 덕학리 서대에서 정안면 창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창고개라 한다.

▷곳집말(고집말) : 정안면 대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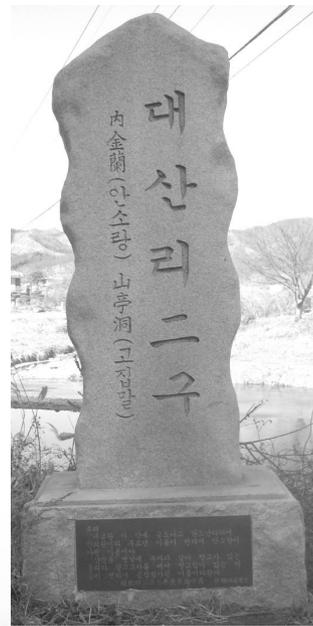
대산리 2구 소랭이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곳집말은 곳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곳집은 곳간으로 지은 집으로 고사(庫舍), 창고(倉庫)라고도 한다.

곳집의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옛날

에 이곳에는 부자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창고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다만 곳집말이라는 땅이름으로만 남아 이곳이 옛날의 창고터였음을 짐작케 한다. 창리(倉里)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수백년 된 느티나무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산정동(山亭洞)이라고도 한다.

▷창말(倉-, 창터) : 유구읍 유구리

유구리 솟대배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는 공주목의 서북쪽 지방에서 거둬들인 조세미를 쌓아놓던 사



공고집말(산정동) 표지석

※ 환자(還子)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 還.

창(司倉)이 있었다. 공주목의 서쪽에 있는 창고라 하여 서창(西倉)이라고 일컬었다. 서창의 냇가 부근에 있는 들을 창말들이라 부른다. 창고터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 자리에 직조공장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부근에 99칸 짜리 고택이 일부 남아있다. 1914년 이전에는 창촌(倉村) 또는 창리라 칭했다. 창고터가 남아 있어 창터 또는 사창터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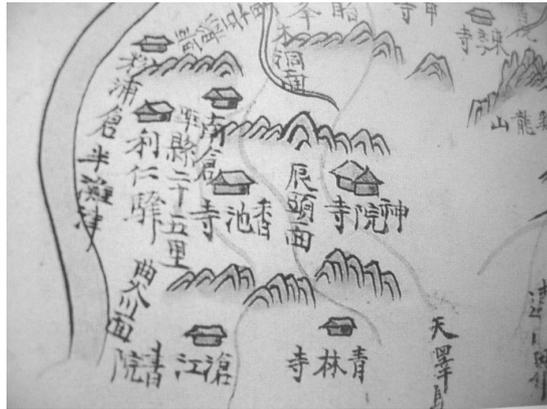
▷내창(內倉) : 우성면 방흥리

원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환곡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원터에는 내창원이라는 원이 있었다고 한다. 원내에 창고가 있어 내창이라 불린 듯 하다. 조선 말에는 내창리(內倉里)라 불리었다.

〈직조공장으로 변한 유구의 사창터〉



이인, 탄천 지역의 창고(출처 : 이인면지)



▷창주막거리 : 이인면 복룡리

복룡초등학교 부근에 창주막거리, 또는 창치골이라 불리는 땅이름이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창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와 주막이 있는 거리라 하여 창주막거리라 불린 듯하다.

창고가 있었던 공주의 다른 지역이 지금은 창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이름만 남아있는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도 창고가 여러 채 남아 있다. 물론 옛 건물은 아니지만 창고의 기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곳이다.

▷창말(倉-) : 의당면 송학리

송학리 들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의영창(義盈倉)이 있어서 환자 쌀 224석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창촌(倉村)이라고도 한다.

계룡면 월암리의 마방교와 시장터



▷사창터(社倉-) : 의당면 청룡리

창들 동남쪽에 있는 조선 시대 사창의 터. 창들(倉-)은 와룡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창평(倉坪)이라고도 한다.

▷분창(分倉) : 탄천면 분강리

분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부근의 금강가의 나무가 있었는데 분창나무터이다. 예전에 청양과 부여로 오가던 나무터이다.

▷창터(倉-) 이인면 용성리

용성리에 있는 창고터. 조선시대 대유창(大有倉)의 터로 환자쌀 155석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창골(倉-) : 신평면 동원리

원터 앞에 있는 마을. 환자 쌀 223석을 저장한 진덕창(賑德倉)이라 부르는 창고가 있던 마을이다. 창터 또는 창동이라 한다.

공주의 공세창 진남루 아래쪽 건물



출처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창고터(倉庫-) : 공주 금성동

공산성 성안에 있던 공주 중영의 별창(別倉)과 전창고의 터.

▷창터(倉-) : 공주시 산성동

공산성 진남루 앞 마을의 창고터. 공주 감영의 군량 창고인 북고(北庫)와 조세를 받아 보관하였던 공세창(貢稅倉), 환자 쌀을 저장하는 사창(社倉)이 있었다. 1910년에 독립공주농림학교가 이곳에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22년 예산으로 이전하여 예산농고로 개편되었다.

배로 공주에서 서울까지는 며칠?

輿地圖書 公州牧 田稅條

己卯年米三千三百八十石四斗正月二月
收捧三月裝載自恩津江景浦經過龍安聖堂
林川南塘臨坡 …… 陽川等而如運順風則
十五六日達于京龍山倉

위의 기록에 의하면 날씨가 좋으면 공주에서 강경포, 용안 등을 경유하여서울까지 15~6일 걸린다고 한다.

추 어 탕



나 태 주

시인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충남 시인협회 회장

오늘 아침 이른 시각,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시내의 제일로 큰 초등학교인 신월초등학교 조동수 교장의 전화였다.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짧은 전언이었다. 조 교장은 이렇게 이른 아침 출근길에 가끔 나를 만나러 오곤 한다. 우리 아파트 앞이나 금학동 동사무소 옆 빈터에 차를 세워놓고 나를 불러내어 무언가를 주고 간다. 말하자면 선물이다. 때로 집에서 손수 기른 채소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한과나 과일, 술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차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번번이 미안한 일이라서 받지 않고 싶은데 다짜고짜로 전화를 걸고 오겠다 하니 피할 재간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조 교장은 막무가내에다가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서둘러 튜리닝을 걸치고 동사무소 앞으로 나아갔다. 벌써 조 교장의 자동차가 보인다. 자동차에서 내린 교장이 내 앞으로 다가와선 손을 내민다. 마주 잡는 손이 차갑다. 이른 아침 서둘러 와서 그럴 것이다.

“이거 추어탕입니다. 금산 중부대학에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잘하는 추어탕집이 있다 해서 두 그릇 사 가지고 온 겁니다. 사모님이랑 함께 드세요.”

마음이 찡해 온다.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받기가 여간 조심스럽고 민망한 게 아니다. 어떤 형제가 있어 이토록 간절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조 교장이 주는 비닐봉지를 받으며 튜리닝 주머니를 뒤져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물건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다. 얼마 전 조 교장은 그동안의 교육 공로가 인정되어 을파소상이란 좋은 상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고 무언가 마음의 표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 싶어 서랍 속에 들어있던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가지고 왔

던 것이다. 잘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그만 물건입니다. 만년필이에요. 지난번 좋은 상을 받으셨다기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 평생토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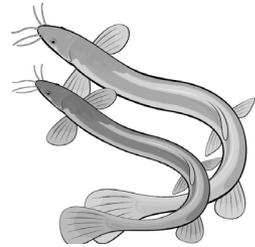
조 교장은 이렇게 한 마디를 하더라도 야무팍스럽게 한다. 내 귀엔 그 “평생”이란 말이 또 아프게 와서 걸린다. 서둘러 우리는 수인사를 차리고 헤어졌다.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자동차 뒤통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이른 아침. 조 교장은 저렇게 학교로 달려가서 자동차를 파킹한 뒤, 곧장 교장실로 가 책상 위에 놓인 호루라기를 목에다 걸고 학교 앞 도로로 나올 것이다. 교통신호등 부분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기도 하고 팔을 휘젓기도 하면서 교통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가는 자동차를 편안하게 오가게 할 것이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또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고집 같은 것이다. 자기 확신이고 다부진 실천력이다. 조 교장은 전임 학교에서도 등?학교 길 스쿨버스를 꼬박꼬박 타고 다니며 아이들 등?학교 지도를 했던 분이다. 그러다가 현재의 학교로 전임해 와서는 학교 앞 도로 건널목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교통지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테면 교통순경이 아니라 교통교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공주 시내 시내버스 운전자들이나 택시기사들 치고 조 교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름은 자세히 모른다 해도 조 교장이 학교 앞 건널목에 한 가운데 나와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번에 ‘저 교장선생님 오늘도 나와 계시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 교장도 내년이면 교직을 물러나 정년을 퇴임을 하게 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하고 조 교장과는 교직생활 중 별반 인연이 없다. 학교의 동기동창 관계도 아니고 동직원 관계도 아니었다. 다만 나이가 엇비슷했고 이웃 학교에서 같이 교장으로 했다는 것뿐이다. 일테면 동료교장인 셈이다. 나는 의외로 까다로운 성격에다가 데면데면해서 사람을 새롭게 잘 사귀지 못한다. 특히 교육계에서 그러했다. 오랫동안 교장으로 근무했지만 마음을 열고 사귀 동료 교장이 많지 않다. 오직 조 교장 한 사람이 있



을 뿐이다. 그것도 내편에서가 아니라 조 교장 편에서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나는 결코 교직생활의 동료로서 조 교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걸 별로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사람이면 되는 일이지. 실상 많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둘러보고 따져보니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명심보감明心寶鑑』 교우交友편에 “술이나 밥을 먹을 때에 형이나 아우나 친하게 사귀 친구가 천 명이나 되더라도 위급한 환난을 당했을 적에 팔 벗고 도와줄 친구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酒食兄弟千個有患難之朋一個無”라는 구절이 있다.)

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전체집합이다.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오직 한 사람으로 대하고 생각하며 사귀어야 한다. 영순위가 있고 1순위, 2순위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순위인 것이다. 백 사람이 있다면 백 사람이 각각 영순위란 얘기다. 백 분의 일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일대 일로 대해야 한다. 유일존재, 귀중한 한 사람으로 받들어 사귀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손윗사람이나 동료 뿐 아니라 손아랫사람, 어린아이한테도 그래야 한다.

나에게 있어 조 교장은 그런 사람이다. 조 교장에게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일 것으로 믿는다.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없지만 이런 말이 있다.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옳으신 말씀, 훌륭한 말씀이다. 인디언의 말로 친구란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 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말이고 향기로운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조 교장이 주고 간 추어탕을 아침상에 올려놓고 아내와 나누어 먹은 뒤, 이메일이라도 띄워야지 싶어 컴퓨터를 켰다. 「추어탕을 먹고」란 제목으로 글을 쓰려던 참이었다. 헌데, 이메일을 열자마자 받은 편지함에 벌써 조 교장의 이메일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아뽀싸! 내가 또 이렇게 조 교장에게 한 수 뒤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 교장의 이메일 내용은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무르녹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한 남자의 사랑을 무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명절

축 제

이 결 재
- 공주시 공공관리소



명절이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설을 쇠고 나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보름 동안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설과 대보름이 다른 명절이지만 정월 초하루부터 3일 동안은 세배꾼들이 어른들을 찾아다니는 설렘으로 명절 분위기를 이어 나갔고 초사흘 밤이면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정월 대보름날을 위한 모임을 갖고 축제를 이어 나갔지요.

정월 초사흘 어른들이 정하는 것은 대동고사의 유사를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남자 호주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모두 살펴보고는 그 중에서 가장 길(吉)한 운이 닿은 사람을 유사로 정하여 정월 대보름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 모두의 복을 비는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정월 대보름 행사를 경건하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정월 초닷새가 되면 마을 한 복판에 농기(農旗)가 섭니다. 산신제, 장승제, 거리제, 깃고사, 목신제(둥구나무고사), 용신제(샘고사)등 대동 고사는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마을 앞에 농기를 세우는 일은 거의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던 일이고 농기를 세울 때 울리는 풍장 소리는 대동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먹은 우물을 소제(掃除)하고 새 물을 받는 샘고사로 이어지고, 샘고사가 끝나면 마을은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사는 새 물을 받아 대동고사에 쓸 술을 담그고 풍장꾼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터를 눌러주고 쌀이나 보리쌀 돈 등을 받아 대동고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축제|

△ 터 누르기

‘뚜루세 뚜르세 물구녕만 뚜루세, 칠년대한 가믄날에 물나도록 뚜르세.’, ‘돌왔어 돌왔어 조왕님이 돌왔어. 만수복덕 누리라구 조왕님이 돌왔어’, ‘오셨네 오셨네 칠성님이 오셨네, 부귀영화 만대 복덕 누리라구 오셨네.’, ‘성주대왕 만사형통 모단이의 단일 소원 이 마당에서 이루소서.’

위에 적은 글들은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각 우물, 부엌, 장독, 마당에서 터 누르기 풍장 축원 소리들입니다.

풍장패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길을 여는 길나래비 양반의 흥내를 내는 잡색으로의 양반이 앞장을 서고 상쇠 2명, 징 1명, 장고, 북 각 1~2명의 풍장잡이와 대동계장이 주인으로 참여를 하지요. 그 뒤에는 추스럼된 쌀이나 보리쌀을 지고 다니는 지계꾼이 서고 함께 춤을 추고 어울릴 사람들이 함께 하지요.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내어 놓는 술이며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어린이들까지 합세하니 안택 풍장꾼들의 일행은 언제나 마을이 떠들썩하게 보일 만큼 큰 규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풍장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 동안 계속되었으니 명실상부한 마을 축제였지요.

△ 아홉 집 밥의 의미

정월 대보름까지는 남의 집에서 익은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도둑질이 분명한 이 풍습에는 청소년들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매달렸지요. 또 이 풍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동안은 저녁을 지을 때 밥을 넉넉하게 지어 솥 안에 한 그릇쯤은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결국 마을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도둑질은 묵인하는 것인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오곡밥 이 기간동안은 저녁을 지을 때 밥을 넉넉하게 지어 솥 안에 한 그릇쯤은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달집태우기



인 모르게 흠쳐가는 것은 없는 일이지만 들키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한집에서 밥과 반찬을 모두 흠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대동고사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가정의 평온을 기원하는 각각의 고사를 올렸는데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 풍습에는 아홉 집 밥과 나무 아홉 짐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집의 음식을 먹는 것, 즉 나누어 먹는 미덕을 권장하는 것이고 한술밥을 먹는다는 가족적 동질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마을의 안녕을 위한 기원의 뜻으로 피우는 지불 즉 동네불(洞火)에서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아홉 짐의 나무를 한 곳에 모아 피우는 것을 중요시 한 것 또한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은 모두 한 식구라는 의미를 강조하였던 풍습인 것입니다.

△ 기원의 축제 - 대동고사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민속을 모두 소개 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 한 권을 넘을 테니까요. 대동고사 역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동고사는 말 그대로 마을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는 축제의 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불깡통을 돌리고 풍장잡이들은 풍장을 치고 마을의 어른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올리는 종합 축제의 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다른 고사를 올리면서도 공통으로 행하던 대동소지(大洞燒紙)는 마을에 사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이나 군대를 간 젊은이들이나 객지에 나가있는 자손들의 소지까지 올리는 정성이 한 마을에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축제로 승화 시켰던 빛나는 미풍양속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렵습니다. 산업사회의 열풍과 다종교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올곧게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마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서구화된 의식으로 인하여 축제의 개념이 도식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가슴 아픈 일이구요. 명절이 축제였던 소박함이 그림습니다. 그리고 보름내내 마을을 울리던 풍장소리도 많이 그림습니다.



공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찾아서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여성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를 소개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



조춘자 회장

전국주부교실의 설립목적은 주부의 사회성을 계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고 실천함에 있습니다.

공주시지회는 조춘자 회장님을 중심으로 130명의 회원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의 특징은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민간단체이며, 재정부 등록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감시센터 및 국민 ‘물’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점 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선되는 사업중 하나가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서신상담이 가능하며, 답답하고 막연한 피해를 해결함으로써 활기찬 시민의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업 중에 지방 물가조사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율물가, 견제기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소비자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조사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116개 품목(개인 서비스요금, 농축산물, 공산품)을 조사함으로써 지방 물가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및 지방 물가를 비교·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으로는 온누리안 가족쉼터의 운영입니다.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에 쉼터를 개설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에 대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글



교육과 컴퓨터 교육, 예절교육과 가족화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함으로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원산지 표시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원산지 표시를 실시함으로, 소비자에게 믿음- 생산자에게 희망을 주어 신뢰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내 유지적정 냉. 난방 유지 및 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교육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상식적인 소비자 사전 피해, 예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 활기찬 소비생활을 유도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친환경 농산물 현장을 견학한다든가, 내분비계 환경호르몬 줄이기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홍보하는 멋진 봉사단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들께서도 소비생활에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주부교실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부교실 공주지회 회원 여러분들도 파이팅!!!

글김춘원 명예기자



에너지절약 소비자 보호 교육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친환경 축산 우수농가 방문



내분비계 환경호르몬 줄이기 전시회



노인소비자 교육

무령왕 이야기

1. 무령왕, 누구의 아들인가



윤 용 혁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백제 제25대 무령왕(재위 501~523)은 1971년 왕릉의 발견으로 인하여 비로소 ‘유명인사’가 된 인물이다. 무령왕의 무덤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한국의 고대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세인의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검토 결과 웅진시대 23년간 무령왕의 재위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신라와의 화친정책을 기조로 한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양 나라와의 통교를 통한 백제의 국제적 지위 확보 및 선진 문화의 도입과 전파, 농업의 진흥을 통한 민생 안정 정책 등은 이후 성왕대의 사비 천도가 가능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릉의 출현 이후에야 사비시대 백제의 융성을 가져오는 도약대의 구실을 하였던 웅진시대에 있어서 무령왕의 역할은 “다른 어느 왕의 그것보다도 중요하고 건실한 것”이라는 평가를 비로소 받게 되었다.

무령왕대의 정치에 대해서는 11세기에 편찬된 한국의 대표적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고, 따라서 무령왕은 이 역사서에 의하여 재정리,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 무령왕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 고대사서인 『일본서기』에도 흥미로운 기록이 남겨져 있다. 특히 왕의 출생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침묵과는 달리 『일본서기』에 다소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일본에 파견된 백제 왕자 곤지 부부가 도일 도중 각라도라는 일본의 한 섬에서 무령왕을 출산하였다는 것이며, 무령왕의 생모인 곤

지의 처는 원래 백제 제21대 개로왕의 부인이었는데, 개로왕이 동생 곤지의 간청으로 이미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곤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령왕의 혈통은 법적으로는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령왕이 『삼국사기』에서처럼 동성왕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서기』에 실린 『백제신찬』은 그가 곤지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 해(武烈天皇 4년) 『百濟新撰』에 말하였다. 末多王이 무도하여 백성에게 포박한 짓을 하였다. 국민이 같이 제거하였다. 무령왕이 섰다. 謂는 斯魔王이다. 이는 琨支王子(곤지왕자)의 아들이다. 즉 末多王(동성왕)의 異母兄이다. 곤지가 왜에 향하였을 때 筑紫島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았다. 섬에서 도로 보내 京에 이르기 전에 섬에서 낳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 지금도 各羅의 바다 속에 主島가 있다. 왕이 탄생한 섬이다.(『일본서기』 15, 무열기)

이에 의하면 곤지(코니키시)는 형 개로왕에 의하여 일본에 파견된다. 461년(개로왕 7)의 일이다. 그리고 도일의 여정에서 한 섬에서 무령왕을 출산했다는 것이다. 그 섬은 각라도 라는 섬이고, 섬에서 출생한 때문에 ‘사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백제신찬』의 기록에 대하여 『일본서기』의 찬자는 다음과 같이 이견을 표시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島王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말다왕(동성왕을 기리킴 : 필자)은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를 異母兄이라 함은 미상이다. (『일본서기』 15, 무열기)

즉 무령왕은 『백제신찬』의 기록처럼 곤지의 아들이 아니라, 곤지의 형인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왕과의 관계도 형제간이 아니라 종형제간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다른 기록에는 무령왕의 출산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웅락천황 5년) 여름 4월 백제의 加須利君[개로왕]은 池津媛을 태워 죽였다는 것을 전하여 듣고, 협의하여 “옛적에 여인을 바쳐 采女로 하였다. 그런데 무례하여 우리나라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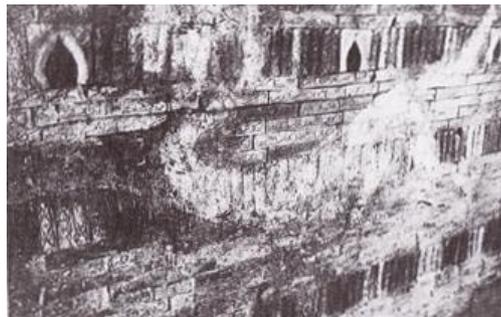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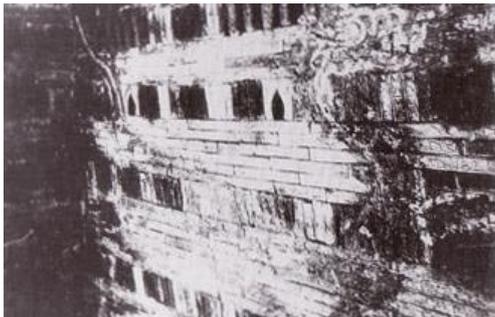
떨어뜨렸다. 지금부터 여인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우 軍君[昆支]에 고하여 “너는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겨라”라고 말하였다. 軍君이 대답하여 “上君의 명에 어긋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君의 부인을 주시고, 그런 후에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軍君에게 장가들여 “내 임신한 부인은 이미 產月이 되었다. 만일 도중에서 출산하면, 부디 같은 배를 태워서 어디에 있든지 속히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헤어져 조정에 보냈다.(이상 『일본서기』14, 웅략기)

이에 의하면 곤지는 개로왕의 명에 의하여 일본에 파견되면서 임신중인 개로왕의 부인을 요청하여 부부로서 도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461년 곤지가 일본에 파견되면서 그는 개로왕의 임신중인 부인을 처로 맞아 함께 동행하였으며, 도중에 출산한 것이 무령왕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서기』에서는 무령왕이 곤지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무령왕은 곤지의 형인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즉 곤지는 의부, 개로왕이 친부(親父)라는 이야기이다.

2. 가당도, 무령왕의 출생지인가

『일본서기』의 기록 가운데 무령왕의 계보 문제에 비하여, 그가 일본의 한 섬에서 출생하였다는 기록은 더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백제왕의 일본에서의 출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기록이 다소 설화적이어서 얼른 신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무령왕의 생모가 본래 개로왕에 의하여 임신되었는데, 개로왕의 동생 곤지에게 주어져 일본

무령왕릉 내부 | 좌정릉 우백호



에 가던 도중 출산하였다는 설화같은 이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령왕의 계보가 『일본서기』의 기록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결론은, 그 출생지 문제도 검토의 여지를 일정하게 제기한 것이었다.

무령왕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든 것은 왕릉 관목의 목재가 일본산임이 밝혀지게 됨으로써였다. 원래 무령왕릉 발굴 보고서에서는 왕릉의 관재를 육안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었다. 박상진(朴相珍)은 목관 시료를 목재조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일본열도의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금송(*Sciodopitys verticillata*), 고야마키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울러 일본으로부터의 도래품으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관재로 가공하기 전의 원목은 직경 1.3미터, 길이 3미터, 무게 3.6톤, 수령 300년 이상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령왕릉 관재가 일본산의 고급 목재였다는 사실은 무령왕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무령왕의 일본 출생 전승도 재검토의 가능성이 열렸다.

무령왕과 일본의 무령왕 출생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백제신찬』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열기 4년) 곤지가 왜에 향하였을 때 筑紫島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았다. 섬에서 도로 보내 京에 이르기 전에 섬에서 낳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지금도 各羅의 바다 속에 主島가 있다. 왕이 탄생한 섬이다. 고로 백제인이 主島라 이름하였다.

『일본서기』의 기록이다.

6월 병술 삭(1일), 임신한 부인은 과연 加須利君(개로왕)의 말대로 筑紫의 各羅島에서 출산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鳩君이라 하였다. 그래서 軍君은 배 1척을 마련하여 鳩君을 백제에 돌려보냈다. 이를 무령왕이라 한다. 백제인은 이 섬을 主鳩라 하였다.(이상 『일본서기』 14, 응략기)

양자를 종합하면 무령왕은 축자의 각라도에서 출생했는데, 사마라는 이름은 그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며, 이 섬을 백제 사람들은 특별히 ‘主島’, 즉 ‘임금의 섬’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무령왕의 이름 사마는 『삼국사

기』에는 ‘斯摩’라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는 ‘斯麻’라 하였는데, 정작 지석에서는 후자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각라도에서 출생한 사마는 곤지의 아들이며, 당시 곤지는 일본의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곤지의 일정은 다소 지체되었지만, 아이를 백제에 돌려보내고 그는 본래의 계획대로 일본의 서울로 향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무령왕의 출생지로 나오는 각라도와 거의 흡사한 섬이름의 가당도에 백제왕 출생 전설이 전한다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사가현의 가당도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사가현 동송포군 진서정에 속해 있고, 호자정의 항구로부터 배로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면적은 2.8km², 섬의 둘레는 12km, 인구는 60여 세대, 250인 정도로 되어 있다.

가당도에는 백제왕의 생모가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섬에 상륙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동굴이 ‘오비아浦’라는 바닷가에 남아 있다. 또 포구 바로 옆의 골짜기에는 해산 후 아기를 씻겼다는 작은 샘이 전한다. 그러면 『일본서기』에 무령왕의 출생지로 등장하는 각라도가 과연 현재의 가당도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어서 종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근년 무령왕 가당도 출생설에 둘러싼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노중국은 위의 이기동 논문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무령왕의 『일본서기』자료를 거의 그대로 신빙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출생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곤지가 잉부를 대동하고 도일하던 중 출산하는 내용을 상세히 논의하고, 아울러 “곤지는 잉부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를 낳자 아이는 본국으로 보내고 잉부와 같이 왜에 머물렀을 것이다”고 하였다. 무령왕의 가당도 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려는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문경현을 들 수 있다. 그는 무령왕의 출생 설화가 ‘황당무계’한 사료가 아니며, 다분히 개연성이 있는 설화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를 가당도에 전하는 전승과 연결시켜 정리 소개하였다. 김현구는 가당도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서기』의 무령왕 자료를 인용 소개하는 한편, 이를 그대로 신빙하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공주시 웅진동



지명에 얽힌 사연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

- 마을의 지리적 환경
- 마을과 지명 유래
- 역사 기록 속의 한산소 · 박산소
- 한산소와 박산소의 문화유적
- 한산소 · 박산소 마을의 민속

한태동의 묘소

웅진동 한산소라는 이름은 이 묘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묘소이다. 한태동의 묘소는 한산소 마을 뒤편에 있는 한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바라봐도 묘소가 보일 정도로 인근에서는 큰 규모이며, 봉분 양쪽에는 문인석과 석주를 세워두었다.

한산소는 충청감사 한태동(韓泰東, 1646~1687)의 묘로, 묘소 앞에는 단을 두었는데 이곳에는 '朝鮮壯元及第御使中丞是窩韓公泰東之墓'라 각서되어 있다. 현재 마을에 후손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년 시향 제사를 지내러 후손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한태동의 본관은 청주로 자는 노침

(魯瞻), 호는 시와(是窩)이며 장령을 지낸 한진(韓縝)의 아들이다. 1666년(현종 7)에 생원이 되고, 1669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장령·집의를 거쳐, 교리로 있을 때 서인 중에서도 대남인 정책에 과격론자였던 김익훈(金益勳)·김석주(金錫胄) 등이 '남인역모설'을 조작하자, 같은 서인으로서 조지겸 등 소장파와 함께 그 흉계를 폭로하고 처형을 주장하였다가 이듬해 파직되었다. 그는 1684년 집의로 복직되었는데, 파직과 복직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1685년 부수찬·헌납·부교리를 지내고, 1687년 사간이 되었다. 저서로는 『시와유고』가 있다.

이 묘소와 관련하여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 일대에는 충청감사 한태동에 관



묘소 앞 문인석



충청감사 한태동의 묘소

송장배미와 전적기념비



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온다. 충청도 감사로 부임한 한태동은 어느 날 한낮에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잠결에도 배 위가 서늘한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얼른 눈을 떴다. 그런데 난데없이 커다란 구렁이가 그의 배 위에서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다. 잠결에 너무 놀란 한태동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대범한 성격의 한태동은 큰 소리로 하인을 불러 일단 문을 열게 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재빠르게 구렁이를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땅에 떨어진 구렁이도 갑자기 놀라 도망을 갔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는 지 3일만에 중국의 오랑캐가 조선을 쳐들어왔고, 한태동이

맞서 전쟁을 막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처럼 한태동은 마을 일대에서 굉장히 용맹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송장배미와 곰내골(동학농민운동 유적지)

한산소와 박산소에는 직접 동학농민군 유적지가 전하지는 않지만, 조사지역과 인접한 곰내골의 송장배미 유적이 이 마을의 동학관련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고마나루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항쟁 유적지인 송장배미는 동학농민군이 고마나루 쪽에서 공주감영이 있던 봉황산으로 진격해 들어가던 길목이었다. 농민군의 마지막 총 공세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 오성 씨가 그의 아버지에



한산소 장승과 입석



게 들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농민군들이 웅진동과 한산소, 박산소까지 장꾼차림으로 변복을 하고 선발대로 나갔다가 종주모퉁이(송장배미)에서 밀려나왔으며, 일부 농민군은 공산성 바로 아래 산성동과 공산성에서 잡혀 죽었다 한다.

또한 이 지역의 논을 경작하던 이상직 씨에 의하면, 그가 들은 어른들 말쑈에 농민군 약 18명이 이 논에서 죽었다고 하며, 또한 관군 백락완의 기록은 『남정록(南征錄)』에도 송장배미 부근에서 관군과 농민군이 격전을 벌여 수십 명의 농민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조사지역 주변에도 고마나루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하고개에서



박산소 장승

장꾼으로 위장한 농민군이 읍내로 진입하려다 잡혔다는 이야기나, 봉정동 송주골이나 은골·방축골 등에서도 농민군의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구전이 전해오고 있다. 이로 보아 역시 이 일대가 공주 중심지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당시 중요한 격전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주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2005에서 전거)

이러한 사건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송장배미 일대를 한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묵혀두었다고 한다. 게다가 마을 주변에서는 땅 없는 가난한 농민을 놀리는 말로 '종주 모퉁이에 가서 송장배미나 지어 먹어' 라는 말까지 오르내릴 정도였다. 종주들은 송장배미에서



고마나루 방향으로 이어지는 들을 말하며, 송장배미는 종주들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논이다.

한편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곳 주변을 경작하던 소작인이 그들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다고 한다.(박산소 황석준 옹 제보)

한산소 · 박산소 마을의 민속

한산소 장승제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에서 예로부터 마을 공동으로 행해오던 장승제가 각각 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한산소와 박산소 마을의 공동제의는 인근의 봉정동이나 교동의 경우와 같이, 원래 금강변 주변 공주 일대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산신제와 노신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하당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산소의 산신제는 일제 무렵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장승은 현재 마을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1기는 묘 앞의 문인석으로 쓰이던 것이 옮겨온 것으로 여겨지며, 나머지 1기는 입석으로 보인다. 이 2기 역시 마을 입구 콘크리트로 정리된 단 위에 모셔져 있다. 높이는 각각 95cm, 65cm이다.

매년 정월 14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기와 술, 과일을 놓고 제를 올

린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각각 소지를 올리곤 하였는데 현재는 일부 주민들만 제를 올리고 있다.

박산소 장승제

박산소의 산신제는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행해졌다고 하나, 점차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박산소 마을 뒷산에 있었다는 산신각은 나무로 지어진 한 칸 건물로, 내부에는 신선도를 비롯하여 제사에 필요한 제기 등을 보관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이것마저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다.(『공주의 민속신앙』, 공주문화원, 1995에서 인용)

박산소 역시 현재는 장승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산소의 장승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길 가 옆들에 자리하고 있다. 역시 매년 정월 14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지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박산소 마을 입구의 장승도 모두 2기로 이 들은 아마도 묘 앞의 문인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옮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왼쪽의 장승은 상체의 일부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1기의 장승과 함께 단 위에 모셔져 있다. 높이는 각각 65cm, 53cm이다. 한편 수십 년 전에는 장승 주변에 마을사람들이 나무를 깎아 솟대를 세워두기도 했었다고 한다. <끝>

새 책 소개



2007 공주도서관 스무번째 이야기

금강의 돛 ‘스무번째 이야기’가 금강주부 독서회 회원들의 정성스런 내용을 담아 발간되었다.

1987년부터 발간하여 스무번째 책인 ‘금강의 돛’은 ‘스무번째 진솔한 이야기’라는 이기환 공주도서관장의 발간사로 시작하여 서예, 시, 수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문하, 에세이집 ‘남이알까 무섭다’

이문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이 정년을 앞두고 에세이집 ‘남이 알까 무섭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뿌리박고 살아 온 저자의 세월, 사고, 고향, 가족, 관점, 추억, 인생이 녹아 있다.

- 중동초, 공주중, 공주고, 충남대영문과, 충남대영어교육대학원 졸
- 공주고 교감, 충남교육청 장학관, 공주여고 교장, 공주교육청 교육장, 충남교육연수원장역임
- 현재 공주생명과학고 교장



원종린 수필문학전집

- 어느 멍청이의 인생일기

40여년에 걸친 원종린 선생의 문단생활을 정리하는 뜻에서 발간한 수필집으로서 그동안 날권으로 발표한 글에 최근에 발표한 글을 묶어 6권으로 된 전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 공주사범학교 교사
- 공주교육대학 교수
- 1989 공주교육대학 정년퇴임
- 한국문협 공주시 지부장 역임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한국수필문학회 이사, 「문학사랑」고문



정규한 선생 초상화

學問과 德望과 孝誠이 지극한 선비

學者 정규한 선생

鄭奎漢

(1751~1824)

선생은 조선 정조(正祖) 때의 학자로서 자는 맹문(孟文)이요, 호는 화산(華山)이며, 본명은 정규한(鄭奎漢)이다. 본관은 영일(迎日)이었으나 고려 현종(顯宗) 때 선조 자여(子輿)께서 태사(太師) 벼슬로서 고려 조정에 큰 공을 세워 추충진국공신(推忠鎮國功臣)으로 장기 백(伯)을 봉했으며 그때부터 본관이 경상도 영일(迎日)에서 같은 도 장기(長鬐)로 개칭되었다.

선생의 高祖는 東有이며, 曾祖는 세형(世衡)이고 祖父는 내교(來僑)요, 父親은 광흠(光欽)이다. 어머니는 풍양조씨 문중의 딸로 영조(英祖) 辛未年에 선생을 낳았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함은 물론, 성품이 溫厚하였으며 지혜가 총명하며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품어 송성담(宋性潭)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修學을 시작하여 학문이 日就月將하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선생은 두뇌도 우수하였지만 공부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새벽 일찍부터 학업에 열중하였으며, 밤에는 늦게까지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선생은 정조(正祖) 4년(1780)에 進士 3등으로 합격하였

으나 벼슬에는 큰 뜻이 없어 운수헌(雲水軒)〈지금의 계룡 화헌리 가재골로 추측〉에 기거하면서 後學養成에 많은 힘을 쏟으셨으며, 농환정(弄丸亭)〈운수헌과 같음〉에서는 직접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선생께서는 여러 성씨의 가훈들과 후손이 경계하여야 할 글을 지어서 후손들의 지표가 될 『화산집(華山集)』을 직접 집필하시어 현재 天地人 3권이 전해지고 있다.

선생은 학문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朝夕으로 부모님의 침소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드려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하였다.

선생의 나이 20세에 父親喪을 당함에 대한 예절을 극진히 다했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朝夕으로 성묘의 정성을 다하였다.

선생의 높은 학덕과 명성이 널리 알려지니 선생의 초소를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으며, 가뭄이 심해져 웅덩이에 물이 마르게 되면 웅덩이 있는 어린 물고기가 죽을 것을

정규한 선생 묘소



가엽게 생각하여 선생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동을 시키어 물이 많은 연못으로 옮기도록 하여 많은 어린 물고기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평소 온후한 성품과 자비로운 마음을 몸으로 실천한 분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 중에 생활이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식량을 나누어 주는 등 은혜를 베풀어 인근 주민의 칭송을 받았다. 선생의 평소 행실이 주위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부모의 제사를 행함에 있어 사당(祀堂) 내외를 청결하게 함은 물론 제기(祭器)마저 깨끗하게 닦아 정성을 다하여 닭이 울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리면서 제사를 마치는 등 모든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

선생의 관직(官職)은 조선 정조 때에 사마(司馬: 병조판서)에 올랐으며 庚戌年에 道佰 홍석주(洪奭周)가 선생의 학문과 덕망을 조정에 천거하여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당시 선생의 身病으로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순조(純祖) 24년(1824)에 享年 74세로 他界하였다.

높은 學德과 經綸을 발휘하지 못하고 긴 病苦에 시달리다 세상을 하직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에 祠堂을 지어 영정(影幀)을 모시었으니 이것이 곧 『화산영당(華山影堂)』이다.

지금도 그 후손과 儒林에서 春秋로 祭享을 올리고 있다.



화산영당



신명나는 우리의 가락 풍 물

우리는 원시시대가 수렵과정에서 짐승을 잡으며 소리쳤을 함성이나 그 소리를 가중시키기 위해 두들기던 몽동이 소리 또는 큰 짐승을 쓰러뜨린 뒤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데 반자악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두드렸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은 풍물굿의 원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풍물의 기원에 대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에 삼국시대 이전 '영고'나 '동맹', '무천' 등의 제천 행사에서 이미 풍물 굿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추측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제천의식 일반을 서술한 것이어서 모든 제의와 놀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풍물의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된 시기 및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 들어 주조술이 발달한 신라에서는 쇠나 방울을 두레농악(도솔가)을 지어 놀았다고 하는데 '꽤지나 칭칭나네' 하는 팽가리 소리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이밖에 백제에서는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군사들을 열병할 때 풍물을 쳤다고 하였고 매년 음악인을 파견하여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풍물이 국방예술로서 자리잡아 전쟁시 군사의 사기를 높이고 적을 교란시키는데 풍물이 이용되었다. 거란군의 침입시 최충현이 군사 열병식에서 적군 목베는 놀이굿인 도둑잡이굿을 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때에 청자기로 만든 장고가 있었다.

또한 무당의 굿에 장고나 북을 사용하였음이 기록에 보여진다. 또 조선시대의 김홍도 그림 속에서 무동이 춤을 추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반주를 하는 중에 풍물이 같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 각 시대의 풍물이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풍물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선사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풍물은, 노동의 리듬 즉 생산활동의 리듬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장구한 역사속에 생성된 고유한 정서와 생산도구(수단)의 발달은 풍물에 사용된 악기의 구성이나 형태, 장단들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일제시대부터 박제화되기 시작한 풍물은 해방후 한국전쟁과 공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제에 의한 역사적 단절을 극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60~70년대의 전통문화 계승운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전통문화 복원운동'이다. 박정권은 과거 생산대중의 진보적인 민중문화를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관제화' 시키고 관광을 위한 '상업예술화' 하여 박물관 문화로만 남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인간문화재' 지정이 그러한 예이고 이것은 이후에 '국풍', '전주대사슴놀이' 같은 행사로 이어졌다. 한편 60년대 이후의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서는 농촌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풍물을 '미신'이라는 굴레를 씌워 말삼시킴으로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민중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다른 하나는 일부 지식인들의 학문적 연구나 전문예술로 전통민속 연희를 계승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70년대 말에 유신통치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탈춤 부흥운동'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80년대 초반기 전두환 정권의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 탄압으로 인하여 일시적 침체기를 거친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83년말 84년 초 민중운동의 성장으로 말미암은 유화조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장르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풍물은 본격적인 대중 장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공주문화원 풍물 강좌 안내

강좌시간 : 풍물 주간-수, 목요일 오전 10시~12시

풍물 야간-화, 목요일 저녁 7시~9시

강의내용 : 풍물 기초, 가락 익히기 및 사물놀이, 윷다리 등

강 사 : 류재열(유일기획사 대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변화와 균형의 미학

요 가



요가의 어원(語源)은 '결합하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엇과 결합하는 것인가 하면 인간이 자연(自然)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인간이 자연과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자연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태인가?에 대하여 알아야하는데 자연이란 글자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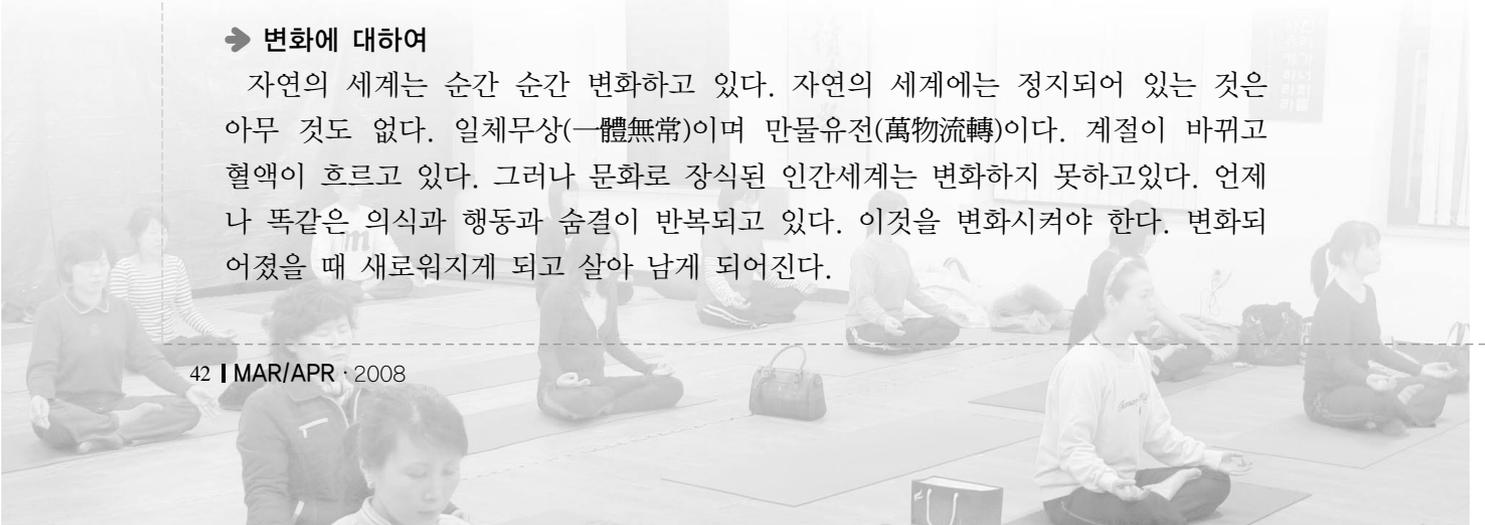
마치 꽃이 피어나고, 새가 노래를 부르며, 숨이 쉬어지고, 소화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처럼 그 일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반 자연(反自然)이란 무엇인가? 반 자연이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인간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 그리고 학설과 상식 같은 것이다.

일체의 일들은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행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되므로 그 결과도 좋게 되어진다. 따라서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범사를 인간세계의 지식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그 행 법이 잘못되어지므로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문화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요가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자연적 문화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준다. 자연적 문화생활이란 인간이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인간 삶의 법칙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삶이 바르게 되어진다.

➔ 변화에 대하여

자연의 세계는 순간 순간 변화하고 있다. 자연의 세계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체무상(一體無常)이며 만물유전(萬物流轉)이다. 계절이 바뀌고 혈액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문화로 장식된 인간세계는 변화하지 못하고있다. 언제나 똑같은 의식과 행동과 습관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되어졌을 때 새로워지게 되고 살아 남게 되어진다.





변화되지 못하고 정지되어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이 되면 썩게된다. 성인병이란 자기 심신에 변화 없는 동일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므로 서 몸과 마음이 항상 똑같은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성인병이 회복되려면 몸에도 마음에도 변화자극을 주어야하는데 그 변화의 폭은 클수록 좋고 천변만화(千變萬化)될수록 좋다.

➔ 균형에 대하여

자연의 세계는 균형이 잡혀있다. 균형이란 힘의 치우침이 없는 상태로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 양성력과 음성력의 균형, 긴장력과 이완력의 균형, 확장력과 수축력의 균형, 생성력과 소멸력의 균형, 과한 힘과 부족한 힘의 균형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사회는 분업화되어가므로 균형유지력(均衡維持力)이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균형유지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하는데 그 요령은 지금의 자기상태와는 반대자극을 주는데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자기 상태가 원심력이 강해서 물렁하게 되어있다면 구심력을 강화시켜서 단단하게 되는 자극을 주어야 균형이 잡히게 되고 또 긴장력이 과해서 경직되어 있다면 이완력을 높여서 심신의 힘을 빼는 자극을 주어야 균형이 잡히게 된다.



정윤경(주간)

공주문화원 요가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주간반-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야간반-화, 목요일 오후 7시~9시

강의내용 : 명상, 운동, 호흡법 및 마음과 몸을 단련

강 사 : 주간반-정윤경(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사)

야간반-박혜정(공주대학교 연구조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박혜정(야간)



공주 시민화합체육대회

- 4월 27일 개최

제8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오는 4월 27일 일요일 공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공주시와 공주시체육회는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통해 시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은 물론 전 시민이 함께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체육회는 2월 12일 오전 각 읍·면·동 체육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회의를 열어 총 9개 경기종목을 놓고 자웅을 겨루기로 합의했다.

市 체육회는 이날 육상(남·여 100m, 400m 계주), 단축마라톤, 피구, 단체줄넘기, 장대높이뛰기, 달리기, 씨름, 게이트볼, 바구니 공넣기 등 8개 종목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고, 올해 축구종목을 추가해 체육대회 당일 날 결승전만 치르기로 결정했다.



봄철 농번기를 피해 4월 27일 일요일에 열기로 합의

市브랜드슬로건, 'Hi Touch Gongju'

공주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하이 터치 공주 (Hi Touch Gongju)'가 채택됐다. 공주시는 지난 2월 29일 오전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보고회를 열어 '고감도로 체험하는 공주'라는 의미를 담은 'Hi Touch Gongju'를 市 슬로건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오는 3월말까지 슬로건 디자인 기본구상·기획 및 기초디자인(Basic Design) 개발을 마치고, 4월 중 공공기관·특산품패키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Application Design)개발, 5월 초까지 각종 매뉴얼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주를 서남부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

- 이완구 지사, 연두순방 자리에서 약속 -



이날 이완구 도지사는 무대에서 내려와 직접 질문, 건의하는 시민과 대화를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월 25일 공주시를 연두순방한 자리에서 “공주시를 충청의 본향이자, 서남부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완구 지사는 이날 오후 공주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약속하고, “지난해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올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지사는 이어 “연차적으로 470억원을 투입해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 문화예술, 환경생태 분야 등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주를 포함, 낙후된 도내 8개 서남부권의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60억원씩 10년간 예산지원을 하겠다.”며 지역간 균형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완구 지사는 특히 공주대 ‘한민족문화센터’ 설립추진, 백제문화제의 세계명품축제화, 호남고속철 공주역세권 개발, 금강운하 프로젝트, 금강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주를 충청 서남부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5일에서 10일로, 2010년에는 50일까지 행사기간이 늘어나고, 올해 8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 공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주-논산, 공주-부여, 공주-연기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부각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는 무대에서 내려와 직접 질문, 건의하는 시민과 대화를 했다. 또한 민원 사안에 따라 즉석에서 담당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노련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이완구 지사는 끝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희망과 비전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웅진동 일대 공예 공방촌 조성



공주시가 웅진동 무령왕릉 인근에 공예 공방촌(工房村)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년 3월 초순 발주해 2009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공예 공방촌에서는 목공·금속·도자기 등 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공방촌 내부에는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체험공간 및 창작공방, 정보자료실 등도 갖춰 관광객들에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체험공간

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된 공예품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1동도 함께 건립해 이 곳에서 생산되는 우수 공예품을 내방 관광객에 직접 판매한다는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공예공방촌은 웅진동 65-1번지 일대 1만8,800여㎡의 부지위에 지상 2층 연면적 725㎡ 규모의 공예품 전시판매장과 30평 규모의 공예 공방촌 10동(棟)을 건립하기 위해 공주시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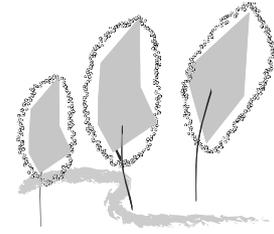
공주시,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 공모

공주시가 방재의식 고취와 자연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를 공모한다. 시는 오는 5월 25일 제15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공주시가 주관하고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를 공모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이며, 초등학생 이상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표어, 포스터 두 부문으로, 포스터의 경우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 4절 또는 B3용지 크기로서 공모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평면 표현물 1매 및 작품설명서이며, 표어는 25자 이내로 구성이 제한된다. 작품주제는 자연재난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나 재난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 등이다. 시는 작품에 대한 자체평가 수상 후 우수자는 충청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며, 우수작품은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에 배부, 게시된다.

작품 접수는 재난관리과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041-840-2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팬션형 곰나루 숙박촌 조성



공주시 웅진동 일원 곰나루 유원지 내에 조성될 예정인
곰나루 숙박촌 조감도

공주시 웅진동 일원 곰나루 유원지 내에 팬션형 한옥 온돌체험 숙박촌이 조성된다. 지난 1월 23일 열린 ‘대백제전 기반(숙박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공주시는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웅진동 선화당 맞은편 1만 8,121㎡의 부지에 팬션형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주시가 5도 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과 2010년 대백제

전 기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로써 오는 5월 ‘숙박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6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이준원 공주시장은 “청소년 수학여행단, 외국인 관광객,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험마을 등 용도가 다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교육과 체험, 관광 등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테마 관광 인프라를 강조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평화엔지니어링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시유지 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감축, 청소년 체험·체험형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개발 후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 소요, 부정형의 저지대로 효율적인 시설배치의 어려움, 유원지 내 과도한 숙박시설 계획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 도로변에 면하고 있어 숙박시설로써의 입지 위협 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각 건물은 9, 12, 15평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실내난방식은 아궁이와 구들장 등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온돌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직접 불을 지피기도 하고, 아궁이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옛 정취를 물씬 체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주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각장애 영어교사 '최유림' 출판기념회 개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1월 29일 오후 1시 30분 대학산학연구원 강당에서 관련 교수,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림이 사는 세상'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최유림 교사는 지난 2006학년도에 졸업하고, 2007학년도에 임용고시에 전국최초로 시각장애인 영어교사로 합격, 현재 천안에서 재직하고 있다.

이는 공주대학교 60년 역사상 처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소정의 교사교육을 통하여 시각장애인 학생을 일반 교사로 배출했다.

한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1948년 개교하여 60년 동안 중등교사를 배출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교사양성의 요람이다.



공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통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2월 1일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새로운 단장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gongjulib.go.kr이며, 한글도메인은 '공주시립도서관'이며, 이번에 단장한 홈페이지는 '회원증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회원증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 회원가입 후 회원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시립도서관은 도서대출과 반납을 응진관과 강북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명실상부하게 공주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월 2일 공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응진도서관과 월송동에 소재한 강북도서관을 통합, 시립도서관으로 개편했다.





제9회 응진문화상 추천 · 접수

공주시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9회 응진문화상 대상자를 추천 · 접수한다.

시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문화 발전,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하기 위한 제9회 공주시응진문화상 시상계획안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추천 ·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천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추천대상은 추천일 현재 공주시 관할 구역안 또는 기관 · 단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근무)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공헌한 자가 대상이 되며, 지역사회개발, 교육 · 문화, 체육 · 청소년, 효행상,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수상한다. 추천된 대상자는 ‘공주시응진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통해 오는 4월 26일 시민화합체육대회의 날에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개시

공주시 강남지역 주민의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졌다.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주)는 지난 1월 28일 응진동 청실아파트에서 착화식을 갖고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 2월 중순까지 전세대 공급을 완료하였다.

이날 이준원 공주시장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기쁘다”며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중부도시가스(주)와 공동으로 66억원(시 보조 30억원)을 투자해 21km에 이르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옥룡동을 비롯 응진 · 교동 · 중학 · 산성 · 금학동 등 6개 동지역 39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를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 김상학 교육장 취임

신임 김상학 공주교육장의 취임식이 3일 공주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김상학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주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재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주교육을 실현해 학부모 및 지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주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학 교육장은 지난 1956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생,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했다. 김 교육장은 1978년 연무중학교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딛은 이후 충무교육원, 아산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 성환고 교감, 순성중 및 성환중 교장을 거쳐 지난 2월 29일까지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관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1일 공주교육청 교육장으로 발탁됐다.

대전지법공주지원 인사발령

정영훈 공주지원장이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공주지원장에서 율행정법원 성수제 부장판사가 승진 발령됐다.

또한 공주지원 이수열 판사와 강두레 판사는 의정부지법과 본원으로 각각 인사 발령 됐다.

전 입				전 출			
소속	직위	성명	전소속	전출법원	직위	성명	전소속
공주지원	부장판사 (지원장,승진)	성수제	서울행정	수원지법	부장판사 (지원장)	정영훈	공주지원
공주지원	판사	박주영	서울서부	의정부지법	판사	이수열	공주지원
공주지원	판사	강경호	본원	본원	판사	강두레	공주지원

금학수원지 생태공원 조성 본격화



공주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부터 전개되는 제민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한층 더 활력을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시내 구도심을 관통하는 제민천의 수질정화에 크게 기여할 금학수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말 완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금학동 산59-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금학수원지 생태공원은 39만1,000㎡ 크기로 들어서는데, 금년에만 20여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난 미나리를 비롯해 창포, 물억새, 애기부들, 연꽃, 달뿌리 풀 등 수생식물 수 천여 본과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주차시설과 맑은 물 체험 공간, 기존 정수장을 이용한 수생식물원, 야생 초화원 등도 설치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시민들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사랑 상품권' 시 전역사용 가능

공주시는 기존 산성 재래시장 위주로 활용되던 공주사랑 상품권의 통용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발행될 상품권의 종류는 1,000원권부터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5종으로, 상품권 구입은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공주시청 출장소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도·소매업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1회 5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의 3%를 1,000원권으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1만원권 이하로 100분의 80 이상, 5만원권 이상으로 100분의 60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환급요구할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용지역 확대로 상품권은 기존 산성 재래시장에서 읍면동의 모든 가맹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를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고, EBS 장학퀴즈제왕전 ‘우승’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한일고등학교(교장 김종모)가 지난 1월 18일 녹화된 EBS 장학퀴즈 제왕전에서 수원창현고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우승하여 3,000만원의 장학금과 부상을 받았다.

한일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 12월 15일 1승부터 시작하여 7번의 연속승리 끝에 이같은 영예를 획득, 학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게 됐다.



한일고등학교는 이미 4승의 부상으로 SK가 지원한 1,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특별교실교단선진화 구입비로 사용한 바 있다. 이번에 받은 장학금도 학생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영재 발굴로 공주 미래 키운다

공주교육청 영재교육원(원장 교육장 김종성)은 2007학년도 제1회 수료식을 지난 2월 20일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 78명과 학부모, 학교장, 지도교사를 비롯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중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했다.

김종성 공주교육장 겸 공주교육청 영재교육원장은 1년간의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78명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노고를 치하하고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주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지난 2006년 11월 6일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은 이후 3차에 걸친 전형을 거쳐 지난해 3월 16일 개원식을 실시했고 1년간 공주중동초등학교와 공주중학교에서 기본과정, 원격과정, 심화과정 등 연간 140시간의 재능 개발을 위한 교육과 영재캠프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등의 과정을 마치고 제1회 수료식을 갖게됐다.



2008 Happy 희망축제 개최

- 공주지역 아동센터 연합축제

공주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대표 이삼희)가 주최하는 제2회 공주지역 아동센터 연합축제가 지난 2월 29일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공주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제는 공주 푸른학교, 꿈이 있는 도덕지역 아동센터, 굴렁쇠지역 아동센터, 제일좋은지역 아동센터, 한문서당, 탄천지역 아동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아동들은 레코더 연주, 수화, 다도 시연, 한문 부수노래, 중국어 노래, 악기 연주, 영어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석한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 54회백제문화제 자원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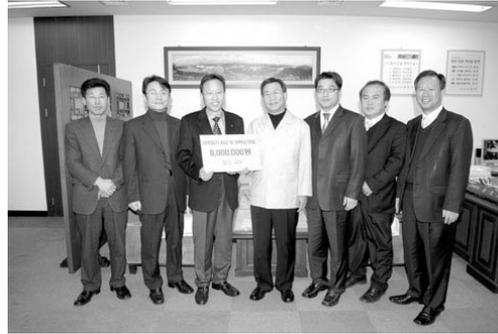
공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백제의 왕도인 공주, 부여일원에서 펼쳐지는 제54회 백제문화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안내, 교통 및 주차관리, 거동 불편자 돌봄이, 안전대책, 환경정비, 통역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301명이고,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서 문화제 행사에 관심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신청서 접수는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부여군청, 충남도청이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pis3135@gongju.go.kr), 우편신청(공주시 산성동 175-5 명학빌딩 3층)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축제담당 (☎041-840-2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꿈의 교회,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꿈의 교회(담임목사 안희목)가 지난해 말 사랑의 열매맺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2월 4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공주시에 기탁,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꿈의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러브 온(LOVE ON) 사랑의 온도계 1000도 올리기 캠페인'을 실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남양유업 노사, 태안 봉사활동 전개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노사가 태안군 일대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16일, 남양유업(주) 공주공장은 한규만 공장장과 이형섭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직원들이 태안군 기름유출 피해지역인 백리포 해수욕장에서 해안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등 피해복구 활동을 펼쳐 봉사활동 업적 이외에도 노사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설 명절 이웃돕기 온정 잇달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달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월 28일, 공주시 유구읍에서 운수업을 하는 황익서 씨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30박스를 유구읍사무소에 기탁했다.

1월 29일에는 농업경영인 의당면회에서는 무자년 설을 앞두고 비단쌀 10kg 30포를 의당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1월 30일에는 조달원 웅진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관내 불우가정 12가구에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심재승 웅진자원봉사단장도 관내 불우가정에 백미 20kg짜리 10포를 전달했다.

또 김동호 웅진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 10kg짜리 20포를 웅진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시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관내 불우한 가정에 전달했다.

생활체육동호인, '사랑의 헌혈운동' 펼쳐



공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공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심태진)에서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공주시야구연합회(회장 정영철)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이 2월 17일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정영철 야구연합회장은 “어려운 환경에 수혈이 필요한 동호인이 있어 이번 헌혈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협조해 준 동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여성협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뉜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임금)는 1월 25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한 부모가족 설 명절 흰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지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성안마을에서 음료 및 차를 판매한 수익금과 회원들이 내놓은 쌀로 흰떡을 만들어 편부·편모 가정에 전달했다.

한 부모가족 55명에게 6kg들이 흰떡 1박스과 계란 등이 전달됐으며, 푸드뱅크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해 간장, 물엿, 튀김가루 등의 양념류와 과자, 음료수 등을 내놓아 그 의미를 더했다.

CMB, 공주시에 라면 200박스 기탁



CMB 충청방송(대표이사 빈의홍)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 관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라면 200박스(시가 300만원)를 기탁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충청방송은 2월 1일 오전 9시 공주시청을 찾아 자체기금으로 마련한 라면 200박스를 주민생활과에 기탁하며 관내 새터민(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과 불우이웃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석인 이인면 명예회장, 경로당에 난방비 기탁

공주시 이인면 명예면장 장석인 명예면장(78세)이 관내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겨울철 난방비를 기탁해 칭송을 받고 있다. 장석인 명예면장은 2월 13일 10시 30분 이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주시 노인회 이인면 분회 정기총회에서 김병권 이인면장에게 관내 35개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겨울철 난방비 175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장석인 명예면장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남몰래 펼쳐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애들이 강통 돌리러 가지”

2월 20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공주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오후 2시 금강둔치공원에서는 제11회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다. 공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시의회 의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월대보름 축제에서는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연날리기, 투호놀이, 새끼꼬기, 장승·숫대 만들기, 집터다지기, 밤 굽기,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놀이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소망을 적은 종이를 달집에 매달아 태우는 달집태우기, 지신 밟기, 쥐불놀이, 강통 돌리기 등의 전통풍습을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올 한해 건강과 행복, 풍요 등을 기원했다.



공주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유적답사 실시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방룡)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총 4회에 걸쳐 '유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유적

답사'를 실시한다. 3월 5일에는 공주 및 인근지역 일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세계유산의 첫번째 주제로 '창덕궁'을 중심으로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송례문 답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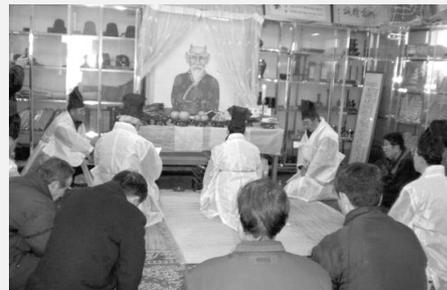
접수는 선착순이며 전화 850-6350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총 10,400원이다.



상서리, 정월대보름 맞아 '신농제' 봉행

상서리 주민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농제(神農祭)를 올렸다. 공주시 우성면 상서2리 주민들은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마을 태상전(太上殿)에서 신농제를 봉행한 후 풍물놀이, 척사대회(웃놀이)를 여는 등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 신농제는 초헌관에 강환만, 아헌관에 오길웅 이장, 종헌관에 오동석 청년회장, 축관에 이원행, 집사에 오종석·강환정씨 등이 참여해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작을 기원했다.



한편, 상서리 주민들은 정월대보름날 불·농업·의약·음악·점술·경제의 조신(祖神)인 신농성제(神農聖帝)에게 10여년 전부터 매년 예를 올리고 있다.



의당면 두만리 장승문 세워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주민들이 마을입구에 홍살문을 닮은 장승문(사진)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5도 2촌 주말도시인 의당면 두만리 주민들은 지난 8일 마을입구 장승백이에 마을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장승문을 세웠다. 나무 준비부터 제작 설치까지 주민들의 힘으로 마련한 장승문은 5m 높이의 좌우 기둥에 장승을 조각하고, 홍살문처럼 대들보형의 나무기둥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선학리, 마을입구에 지게·숫대 세워 '눈길'



공주시 신봉면 선학리 마을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대형 지게와 숫대를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7호 '공주선학리지게놀이'로 잘 알려진 선학리 마을 주민들은 겨우내 만든 대형 지게와 숫대를 마을 진입로에 세우고 올 한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숫대는 전통 민속의 하나로 선달 무렵 법씨를 주머니에 넣어 높이 매달아 풍년을 기원했으며,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장대 끝에 새를 깎아 매달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해 마을 입구에 붉은 칠을 한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푸른 칠을 한 용을 달아 경축의 의미를 담기도 했다.





계룡산 ‘감사과목대신제’ 거행

2008년 무자년 계룡산 감사과목대신제가 거행됐다.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경내에서의 법문 낭송을 시작으로 과목제, 노제(路祭), 장승제 등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감사 과목대신제는 불교와 민속신앙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300년 이상 된 전통민속제로, 화합의 대동제를 통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세속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매년 정월 초사흘에 치러지고 있다.



이날 계룡면 중장리 용천교 앞 1600년 수령의 느티나무 과목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제를 올리며 나라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노제(路祭)와 장승제가 올려졌으며, 참석한 마을 주민들과 탐방객들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불태우며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감사 주지 태진스님, 정진석 의원, 최석원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형복 시 발전기획단장, 중장리 마을주민, 탐방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알기 쉽게 해설한 ‘천원의 행복 classic’ 공연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을 알기 쉽게 해설한 ‘천원의 행복 classic’이 공주시민을 찾아왔다. 이번 공연은 유머가 넘치는 클래식 해설 진행으로 초보자도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게 특징이며, 특히, 공주문예회관이 야심차게 준비한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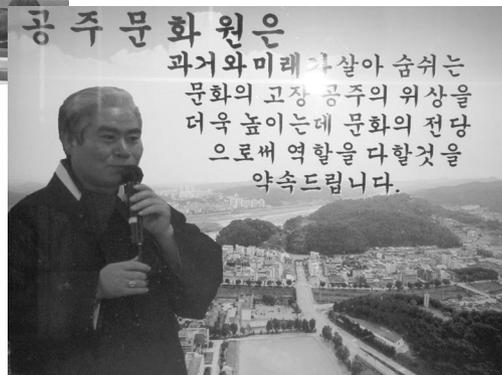
2008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공주문화원은 2008년 2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공주문화원 임원 및 운영위원 등 50여명 및 공주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재욱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원 및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와 금년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어 2007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 2007년 문화원 영상물을 시청 후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의원 심의에 앞서 2007년도 공주문화원 발전 유공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극래(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장), 김영록(충청신문 기자)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공주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2008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국선도, 요가, 댄스스포츠 등 11개 과목, 14개 강좌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2월 12일부터 2008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국선도, 풍물 주·야간, 댄스스포츠 주·야간, 요가 주·야간, 가곡, 서예 및 사군자, 생활일본어, 닥종이, 오카리나, 생활중국어, 다도 등 총 11개 과목, 14개 강좌를 개강하였다.

강좌별 주 1회 또는 주 2회, 주 3회 1일 2시간씩 운영하며 6~7월경 수업이 종강될 예정이다. 전 강좌 전 학생 70%이상 수강자는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장의 수여증을 수여 받을 수 있으며 년 1회 발표회 및 전시회를 할 계획이다.



공주문화원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1993년에 지역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14년간 약 2400여 명의 수강생이 수료하여 우수한 지역문화학교로 호평받고 있다.<사진은 시계방향으로 댄스스포츠, 다도, 오카리나 수업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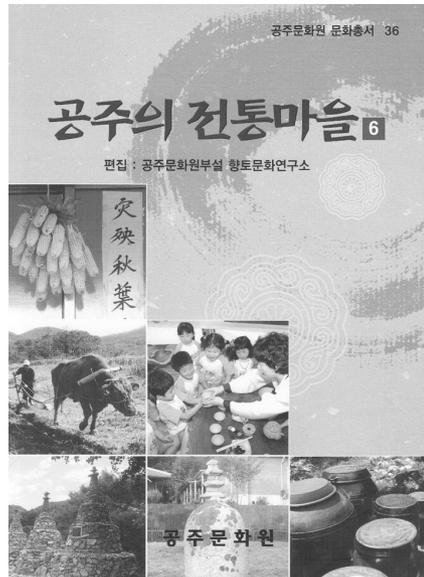
공주의 전통마을지 6집 발간

공주문화원부설 향토문화원 연구소(소장 백원철)에서 발간하는 공주의 전통마을 제6집이 발간됐다. 지난 1996년 제1집으로 시작해 2006년 제5집에 이어 발간된 제6집은 공주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공주의 각 읍·면 단위 전통있는 12개 마을을 선정, 조상들의 열과 슬기가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마을을 통해 찾고자 했다.

제6집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을은 사곡면 부곡리, 신평면 대룡리, 장기면 금암리, 정안면 산성리, 반포면 온천리, 의당면 도신리, 우성면 한천리, 탄천면 가척리, 이인면 구암리, 유구읍 동해리, 계룡면 내흥리, 공주시 금학동 등이다.(이하 순서무시)

정재욱 문화원장은 “역사와 전통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은 약 3만여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지역”이라면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발굴 조사하고 이를 정리, 책자로 발간하는 일을 해오면서 이번 ‘공주전통마을 제6집’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한 것으로 본서가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공주를 이해하고 아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

- 공주문화원 전통마을 6집은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화 : 041-852-9005
- E-mail : 8529005@hanmail.net





죄송해요, 할머니

공주북중학교 2학년 허슬기

에미야~ 나 좀 일으켜줘” 정말 싫었다. 몇 년째 병석에 누워계신 할머니가 정말 미웠다. 그 때 초등학생이었던 난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할머니를 돌보아야만 했다. 할머니는 혼자 일어나시지도, 걷지도 못하셨다. 그때마다 ‘아범아’ ‘에미야, 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한밤중에도 계속 우리들을 부르시는 할머니를 향해 우리가족들은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에미야~” “아, 진짜, 엄마 나갔다구요!” 그리고 늙으셨던 할머니께 이제 치매라는 병까지 들어와 버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할머니가 5학년 때는 창피하기까지 했다. 엄마께서 할머니와 병원을 다녀오실 땐 이미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난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폐에 물이 차셔서, 입원 하셨어!”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물이라서 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여름방학이라서 학원을 갔다가 바로 공주의료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께선 휠체어를 타고 엄마와 함께 바람을 쐬고 계셨다.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여서 그저 반갑기만 했다. 그래서 난 할머니의 2인용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자기로 했다. “엄마!” 엄마께서 할머니를 부르시며 일어나셨다. 할머니는 어떻게 일어나 앉으셨는지 창가에 손을 뻗고 계셨다. “저기 내 친구들 기다리잖아,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분명 병실은 3~5층쯤 됐는데 어디를 가시겠다는 건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러셨다. 엄마께서는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소리 없이 우시곤 했다. 하지만 난 그런 할머니가 무서워져서 그 후론 병실을 찾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TV를 보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께서 누워계셨다. 새근새근 주무시는 할머니가 조금은 귀엽게 보이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집에서 지내셨다. 이제 6학년이다. 5학년 때 전교부회장을 한 적이 있어서 난 전교회장 자리도 노리고 있었다. 1학기에는 잠깐 쉬었다가 2학기에 전교회장 후보로 나갔다.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 할머니가 더욱 아파보이셨다. 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밤늦게서야 잠이 들었다.

“정란아! 정란아!”

아빠께서 자고 계시던 엄마를 부르셨다. 나도 얼떨결에 아빠가 계시던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돌아 가셨어...” 눈물을 머금은 아빠께서 엄마께 말했다. 나와 오빠는 깜짝 놀랐다. 핏기 없이 평온하게 누워계시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도 학교에 나갔다. 전교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라서 나가야만 한다고 엄마께서 그러셨다. 거기에는 단소대회가 별로 남지않아 강당에서 연습을 해야만 했다. 단소를 입에 대기도 전에 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머니께 했던 심한 말들과 행동이 이제야 생각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더 잘해 드릴 걸, 할머니가 너무 그렇다. “할머니....”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밖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

발행인_정재욱 |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회, 신용희, 김춘원 |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852·9005, 852·7600 | 인쇄처_공주신문사(전화 041·853·8111)